

우리 가족 찾기운동 매뉴얼

(사)우리신학연구소 사목조사컨설팅센터

제1장 준비 단계

어떤 사업이나 운동에 대한 계획이든 그 성공과 실패는 사전에 계획을 얼마나 치밀하고 현실성있게 세웠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 가족 찾기운동> 역시 각 본당의 실정에 맞는 치밀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추진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성과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가족 찾기운동은 다음의 4단계로 구분해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준비 단계, (2) 예비 단계, (3) 실행 단계, (4) 마무리 단계. 먼저 준비 단계의 주안점과 구체적인 실행 사항에 대해 살펴 보자.

제1절 사전 실태 파악

좋은 계획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세울 수 있다. 본당에 몇 명의 냉담자가 있는 지조차 모르고 <우리 가족 찾기운동>을 계획할 수는 없다. 지금은 대부분의 본당이 교적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전보다는 냉담자 현황을 파악하기 쉽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의 통계 지침(276쪽)에 따르면, 냉담자의 기준과 집계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냉담자 기준은 3년 이상 교적상 관공성사를 받지 아니한 신자이다.
냉담자수는 냉담자의 주소를 아는 냉담자와 주소를 모르는 냉담자(행불자)의 수를 기재한다.
(단, 주소 불명의 냉담자는 만 75세가 넘을 경우에 사망으로 추정하여 집계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교적 관리 전산 프로그램은 매년 부활과 성탄 때의 관공성사를 기준으로 해서 3년 이상 관공성사를 보지 않은 사람들을 냉담자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처럼 냉담 여부가 잘못 분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 (1) 본당에 교적이 남아 있는 수도자
- (2) 성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관공성사를 3년 동안 보지 않았던 신자
- (3) 관공성사를 보았으나 성사표를 내지 않은 신자
- (4) 관공성사를 보았으나, 본당 사무실의 행정 착오로 말미암아 관공성사 사실이 전산 자료에 입력되지 않은 신자
- (5) 실제 냉담하고 있는 신자이고 관공성사를 보지 않았는데도, 가족들이 관공성사표를 대신 내주어서 냉담자로 분류되지 않는 신자

이처럼 냉담자 현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냉담자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하더라도 현재의 냉담자 현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운동 전과 후의 냉담자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운동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 찾기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확한 냉담자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1차 <우리 가족 찾기운동>이 끝나면 비교적 정확한 냉담자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제2절 계획 수립

1. 운동 목적과 목표의 설정

무슨 사업이나 행사이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그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흔히 본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행사들은 그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고 과거 관행과 경험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처럼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나 행사를 마친 다음 그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어렵게 된다. 설사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관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먼저 <우리 가족 찾기운동>의 주목적을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한국 천주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냉담자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더 많은 신자들이 냉담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 운동을 통해 일상적인 냉담자 방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냉담자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운동 과정에서 신자 재교육을 강화하고 신심을 함양함으로써 앞으로 냉담할 가능성이 많은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족 찾기운동>은 단순히 냉담자 회두운동만이 아니고, 이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본당 신

자들의 신앙 쇠신을 통해 냉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운동이기도 하다.

운동의 목표도 분명할수록 좋다. 목표가 뚜렷할수록 참여하는 신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운동의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거나 신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는 게 좋다.

- (1) 가족 중 냉담자를 반드시 회두하기
- (2) 가구당(또는 반당) 냉담자 1명 이상 회두하기
- (3) 냉담율 〇〇% 달성하기 또는 냉담율 〇〇%로 줄이기
- (3) 관공성사율 〇〇% 달성하기 또는 관공성사율 〇〇%로 높이기

2. 운동 시기와 기간 설정

계획 수립에서 운동 시기와 기간을 정하는 것은 전체 일정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데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다. 신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선교 운동의 일정을 잡을 경우, 신자들의 호응도가 낮아 일을 그르치기 쉽다. 신자들의 관심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순시기나 대림시기처럼 신앙적으로 의미있는 기간이나 본당 설립일과 같은 의미있는 기념일을 전후로 운동기간을 설정할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신자들의 호응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인천교구 만수1동본당의 경우, 총 6차에 걸쳐 진행된 '잃은 양 찾기' 운동 중에서 5차례를 대림시기와 맞물려 진행하였고, 서울교구 구로본동본당의 경우도 대림시기가 마감되는 성탄 전일(24일)을 쉬는 교우 모셔오는 날(D-day)로 정하고 운동을 전개했다.

운동 기간은 운동 시기와 본당 사목 일정에 맞게 정한다. 사순절이나 대림절 기간 동안 운동을 전개할 경우에는 실행 단계의 기간이 이 기간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당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 운동 기간은 최저 2개월에서 최고 4개월까지로 정하는 것이 좋다. 주의 할 점은 운동 기간이 길다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므로, 운동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

3. 운동의 명칭 선정

만수1동천주교회가 처음으로 범본당 차원의 <잃은 양 찾기운동>을 전개하기 전까지 냉담자 회두 활동은 주로 레지오 마리아 단원 등 개별 신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냉담자(冷淡者)라는 말이 언제부터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 공식 사용되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국어사전에서는 '냉담(冷淡)'이란 말의 뜻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 ① 태도나 마음씨가 동정심이 없이 쌀쌀함. **cold-hearted** ② 열심히 하지 않음. **coolness**
- ③ 무관심함. **indifference**

또한 국어사전에서는 ‘회두(回頭)’라는 말의 뜻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 ① 돌아보기 위하여 머리를 돌림. 회수(回首). **turn one's face**
- ② (가톨릭) 교를 배반하였다가 다시 돌아옴.

이처럼 냉담자 회두라는 말이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수¹동천주교회는 범본당 차원의 냉담자 회두운동을 전개하면서 처음으로 <잃은 양 찾기운동>이라는 운동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 운동 명칭은 다음의 성서 구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

너희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나?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의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그대로 둔 채 그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 양을 찾게 되면 그는 길을 잃지 않은 아흔 아홉 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 보잘 것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마태 18,10-14)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들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 하며 못마땅해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흔 아홉 마리는 들판에 그대로 둔 채 잃은 양을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게 되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 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하며 좋아할 것이다. 잘 들어 두어라.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루가 15,1-7).

그분은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 왔습니다(베드로 전서 2,24-25).

서울교구 구로본동본당에서는 <쉬는 교우 모셔오기운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최근 수원교구에서는 범교구 차원의 냉담자 회두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 가족 찾기운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운동의 명칭은 본당 사목회 등에서 이같은 이름들 가운데서 하나를 선정하면 된다. 신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운동의 명칭을 공모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

4. 운동의 표어와 주제 성구 선정

운동의 명칭 외에도 <우리 가족 찾기운동>에 걸맞은 주제 성구와 표어 등을 이용해 신자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제 성구의 예로 다음을 들 수 있다.

그 양을 찾게 되면 그는 길을 잃지 않은 아흔 아홉 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 보잘 것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마태 18,13-14)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목자이시며 보
호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 왔습니다(베드로 전서 2,25).

표어의 경우, 냉담자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표어는 냉담자들에게 전하는 편지 등에 사용한다. 표어를 제창할 때마다 신자들에게 <우리 가족 찾기운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미사 후 또는 반모임 등 각종 모임 후에 공식 표어를 제창하면 좋다.

냉담자도 우리 가족, 구원의 기쁨 함께 나누자.

본당 신자들을 대상으로 주제 성구와 표어를 공모하는 것도 신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5. 기도운동 계획의 수립

<우리 가족 찾기운동>은 기도운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운동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의 기도운동을 계획해 많은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도운동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성서에 나오는 다양한 기도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1) 40일 금식 기도(마태 4,1-3), (2) 21일 고리기도(다니 10,2-3), (3) 개인별 금식 기도(에스 4,15-16).

가. 전신자 대상 기도운동

가장 기본적인 기도운동은 미사 전후, 반모임 등 각종 모임에서 <우리 가족 찾기운동> 공식 기도문을 봉헌하는 것이다.

나. 21일 고리기도운동

고리기도운동은 신청자에 한해 1시간씩 시간을 배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봉헌하는 방식이다.

그 때 나 다니엘은 삼 주간 동안 고행을 하고 있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지 않은 채 예정된 삼 주간을 채웠다. (다니엘 10:2-3)

다. 40일 금식기도운동

금식기도운동은 반별, 단체별로 금식일을 배정해 해당일에 한끼 금식기도를 봉헌하는 방식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사십 주야를 단식하시고 나서 몹시 시장하셨을 때에 유혹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마태 4:1-3)

라. 개인별 금식기도운동

개인별 금식기도운동은 원하는 사람이 스스로 날을 정해 금식기도를 드리는 방식이다.

빨리 수사에 있는 유대인들을 한 자리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생각하시고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단식 기도를 올려 주십시오. 저도 시녀들과 함께 단식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겨서라도 어전에 나가 뵈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에스겔 4:15)

6. 신자 재교육 계획의 수립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가족 찾기운동>은 단지 냉담자를 회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도 언제라도 냉담할 수 있는 게 현실인 만큼 이들에게 적절한 신자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냉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도 <우리 가족 찾기운동>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우리 가족 찾기운동> 계획에는 반드시 신자 재교육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1) 피정 : 전신자 대상 피정, 구역별 피정, 단체별 피정, 대상별 피정

- (2) 각종 신심 세미나 : 성체신심세미나, 성모신심세미나, 성령쇄신세미나
- (3) 신앙 강좌
- (4) 특별 강론

7. 반모임 운영 계획의 수립

<우리 가족 찾기운동>은 구역·반별로 전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운동 기간 동안은 매주 반모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동 기간 동안의 반모임 때는 특별히 반모임 주제와 양식을 제공해 반모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8. 재정 확보

<우리 가족 찾기운동>의 경우에는 새 가족 찾기운동처럼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서 예산 계획은 기본인 만큼 계획을 수립하면서 소요 예산을 산정하고 이를 확보해야 한다. 운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식 기도를 통해 절약한 돈을 봉헌하게 한 다음, 이를 활용하면 더욱 뜻깊을 것이다.

<별첨>

인천교구 만수1동본당의 잃은 양 찾기운동 계획서

잃은 양 찾기와 같은 냉담자 회두 운동은 우리가 성서에서 확인하여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다니시는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1. 잃은 양 찾기 방법

교회의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총체적으로 동원하여 이 운동에 투여함으로 교회의 성장을 원하시는 하느님 구원 사업에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참여한다.

- 가. 3년 이상 냉담자 1,811명을 최대한 회두시켜 찾아 오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정한다.
- 나. 기본조직인 반모임, 단체, 특히 레지오를 전위부대로 교회 모든 조직을 활용한다.
- 다. D-Day를 은경축 행사일로 한다.
- 라. 각 반의 잃은 양은 각 반에서 책임지고 찾아온다.
- 마. 적어도 3-4회 방문을 한 다음 성과가 없을 경우, 레지오를 투입한다.
- 바. 결과는 하느님께 맡긴다.
- 사. 평가회를 거쳐 기록을 남긴다.
- 아. 영적자원의 활용 : 이운동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함으로 활동하고 기도로 열매맺게 한다(미사 전 묵주기도, 활동 전후 개인기도).

2. 진행사항

- 가. 제1단계(준비단계) 1994. 10.27~11. 5
 - 종합 계획을 세운다.
 - 실행하기로 가결한다.
- 나. 제2단계(1차 실행단계)
 -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한다.
 - 계획안 및 준비상황을 사목회에 제출한다.
- 다. 제3단계(2차 실행단계)

- 반별 방문 계획안에 의해 점검하기 시작한다.
- 빠짐없이 방문하도록 독려한다.
- 사목위원이 본당 사무실에서 근무기로 한다.
- 매일 일일 점검, 평가, 격려, 독려

라. 제4단계(점검단계) 1994. 12. 1~10

- 각 구역별 평가
- 레지오 마리아 집중 투입
- 본부임원 매일 비상 근무

마. 제5단계(완결단계) 1994. 12. 13 ~

- 종합 평가
- 기록 보존
- 감사 기도모임

3. 상황실 운영

진행상황을 신속히 처리하여 일일 점검을 위하여 2단계부터 운용한다. 모든 상황은 성당 사무실이 아닌 상황실 전용 전화로 문의, 보고 처리한다.

4. 행사에 필요한 대표적인 준비사항

가. 구역별, 반별 상황판 설치

모든 신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상황판은 신자들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열심히 활동하는 구역반들로 인하여 태만한 구역들은 자극을 받게되어 선의의 격려를 받게 된다.

나. 레지오 마리아의 활용

레지오의 기본 활동인 냉담자 방문의 활동영역을 뛰어넘어 일시에 모든 냉담자를 찾아 본다는 사명감을 고취한다.

다. 홍보물 부착

잃은 양들이 홍보물을 보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활동 현장에서 뛰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구체적인 실물들을 접하게 됨으로 사기충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포스터(성전 구내 여러 곳, 아파트 관리소와 협의 동마다 포스터를 부착한다)
- 애드벌룬을 띄운다.
- 현수막을 지역내 여러 곳에 게시한다.

5. 행사의 성공요소

가. 기도가 선행되고 기도로 끝을 맺는 운동이다.

- 활동전 개인별, 단체별 기도, 구역별 기도 운동전개, 매일 미사 전후 기도
- 준비위원 및 임원 주 1회 특별 기도 모임

나. 모든 신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 행사기간의 교우 상호간 인사는 표어로 대신한다(예, 루시아씨 잃은 양을 찾으시다. 안드레아씨 잃은 양을 찾으시다).
- 모든 단체의 마지막 인사는 “잃은 양을 찾으시다”로 대신한다.
- 주임 사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든 냉담자들에게 단장님들에게 격려 전화 해주심.
- 매주 잃은 양 찾기 운동 소식지 발간

다. 행사의 부정적 요소 및 문제점

- 부정적 생각, 비협조적 태도, 불평·불만은 본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예>

- 냉담자 회두는 어려운 것이다.
- 성당에 한 번 데려 온다든지 몇 번 방문해서 계속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 왜 이런 행사를 만들어서 사람을 들볶아 대느냐?
- 나는 데려올 사람이 없다.

-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이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무서운 독이된다.

라. 초청장 발송

잃은 양들에게 보내는 본당 사제의 글이 담긴 초청장, 모든 교우들이 보내는 사랑의 초청장 발송.

<별첨>

서울교구 구로본동본당의 쉬는 교우 모셔오기운동 계획서

1. 목적

냉담자(쉬는 교우)가 점점 늘어서 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길은 다시 그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도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분이시고,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시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도 쉬는 교우 모셔오기 운동에 참여하여서 하느님 사업의 협력자가 되려는 데에 있다. 우리 교회는 쉬는 교우들에게 하느님이 기다리시고 하느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있다.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

2. 쉬는 교우 모셔오기 방법

교회의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총체적으로 동원하여 이 운동에 투신함으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참여한다.

- 가. 판공 성사를 3년 이상 보지 않은 쉬는 교우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을 방문하여 교회로 인도하여 하느님의 사랑에 참여하도록 한다.
- 나. 기본적인 소공동체, 단체, 특히 레지오 마리아 신자들이 앞서가고 다른 교회 모든 조직은 협력한다.
- 다. 모셔 오는 날(D-Day)을 성탄 전일 24일 밤 10시 미사로 한다.
- 라. 각 구역의 잃은 가족은 각 구역에서 책임지고 찾아온다.
- 마. 신자들은 한 두 사람을 모셔 오도록 한다.
- 바. 각 구역원은 3회 이상 방문한다.
- 사. 각 구역별 전입자와 전출자 및 행불자를 찾아서 교적을 관리 분류한다.
- 아. 모든 결과는 하느님께 의탁한다.
- 자. 성탄 판공성사에 많은 교우들이 성사에 참여하도록 인도한다.
- 차. 12월 24일을 축제일로 정하고 구역별로 복음성극이나 성가를 잘 준비한다.

3. 진행계획사항

- 가. 제 1단계 예비 단계('97년 10월 20일~31일)

- 전신자 잃은 가족을 찾겠다는 분위기 조성을 한다.
- 각 구역반, 단체, 사목위원 등 공감대 형성을 갖는다.
- 본당 잃은 가족 전체 명단을 작성 구역별로 분류한다.
- 기도문을 작성한다(활동 기도문, 40일 금식 기도문).
- 쉬는 교우 모셔오기 운동 선포식을 하고 표어를 성당에다 부착하여 미사 때마다 상기하도록 한다.

나. 제 2단계 준비 단계('97년 11월 1일~15일)

- 선교 위원회에서 종합 계획안을 세운다.
- 구반장, 단체장, 사목위원, 총회를 갖은 후 잃은 가족 명단을 구역별로 배부한다.
- 잃은 가족을 찾는 본당 소식지를 제작한다.
- 기도문 작성 배포
- 주임 사제의 사랑의 편지 → 선교위원(5명)
- 주임 사제의 육성이 담긴 초청 녹음테이프 → 여성 구역 분과위원(4명)
-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성화 비디오 테이프 제작 → 선교위원(5명); 생략함.
- 다음해 본당 달력을 신속히 제작해 배부한다.
- 전신자 40일 금식기도를 시작한다(11. 10 - 12. 20).
- 구역반별로 잃은 가족 대상을 분류하여 방문활동조를 편성한다. 사제 수도자 구역장 반장들로 구성한다.
- 각 구역별로 9일기도로 한다(11. 5 - 13).
- 본당 전신자를 대상으로 외부 강사 초청 교육을 실시한다(11월 15일 3시)
- 쉬는 교우를 초대하는 날(12월 24일)에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성탄 행사(복음성극이나 성가)를 구역별로 준비한다. 또는 생활성가 가수를 초대하여 공연을 한다.

다. 제 3단계 실행 단계('97년 11월 16일 - 30일)

- 구역반별로 잃은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을 시작한다.
- 구역반 모임 때 잃은 가족을 초청하여 환영을 해준다.
- 선교 본부 위원은 본부 사무실에서 일직 근무를 실시한다.
- 구역반별로 주임 신부님 사랑의 편지,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를 전달한다.
- 잃은 가족 대상자에게 판공 성사표와 본당달력을 전달한다.
- 신상 카드를 작성하여 방문 결과를 기록 제출한다.
- 플랑카드를 제작하여 성당 정문에 부착한다(11월 1일).

라. 제 4단계 총력 단계('97년 12월 1일 - 10일)

- 전 구역, 반원은 온 힘을 기울여 잃은 가족을 3회 이상 방문한다.
- 부진한 구역반은 레지오 마리아를 활동 배당한다.
- 각 구역별로 중간 평가회를 갖는다(12월 4일)

마. 제 5단계 결실 단계(97년 12월 11일 - 20일)

- 구역반별 잃은 가족이 성사를 보시도록 성당에 함께 나온다(12월 16-19일).
- 쉬는 교우가 부담 없이 성사를 볼 수 있도록 합동으로 성찰하고 간단한 개별 고백을 하도록 배려한다.
-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각 남·여 구역장, 총무, 선교본부위원(12월 14일)
- 성탄 복음성극 대신에 김정식 생활성가를 공연한다.

<별첨>

인천교구 송림동본당 잃은 양 찾기운동 추진 계획서

1. 목적

- 가. 냉담자 현황을 파악해 지속적인 잃은 양 찾기운동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정리한다.
- 나. 냉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을 통해 하루속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다. 잃은 양 찾기운동을 통해 본당 신자들이 신앙 쇄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2. 추진 중점 사항

- 가. 가시적인 성과보다 본당 공동체의 내적 쇄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나. 소수의 활동적인 신자들만이 아니라 전체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반공동체의 쇄신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라. 기타 구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타 구역 신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3. 추진 일정

	1단계	2단계	3단계
	냉담자 현황 파악	집중적인 기도와 방문	지속적인 방문과 후속 관리
일 정	3월 10일(월) - 4월 1일(화)	4월 2일(수) - 5월 11일(일)	5월 12일(월) -
중점 추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담자 현황 파악<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구역 내- 2차 : 기타 구역▷ 냉담자를 위한 기도 시작<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사후, 각종 모임후▷ 운동 조직 체계 정립▷ 개인별 냉담자 관리 카드 작성▷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게시물의 제작 및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일 기도 전개<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기도, 가정기도- 매일 반별 배당 기도- 반모임 때 지향 기도▷ 매주 1회 특별 반모임 개최▷ 냉담자 방문<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 내 : 반별 방문팀- 기타구역 : 레지오 단원▷ 냉담자 환영의 날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회두 냉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 회두 냉담자의 반모임 참석 유도▷ 회두 냉담자의 단체 가입 유도▷ 새로운 양 찾기 운동 계획과 추진 준비

4. 조직 체계

추진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계획 수립 - 추진 과정 점검 및 독려 - 각종 현황 파악 및 기록 유지 - 본당 차원의 분위기 조성 및 기도 운동 총괄 지휘
본 부 장 : 선교분과장 선교분과 차장, 꾸리아 단장, 부단장 구역분과 남성·여성 대표	
구역별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내 반의 추진 과정 점검 및 보고 - 반별 방문 독려 및 반별 건의 사항 전달 - 반별 기도운동 확인 및 독려
남성 구역장, 여성 선임 반장	
반별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모임 때 활동 사항 토론 및 실천 - 개인별 내담자 신상 카드 작성 및 방문 결과 기록후 보고
반장, 총무, 남성 레지오 단원 2-3명	

5. 세부 사업 계획

가. 40일 기도 운동 전개

(1) 기간 : 4월 2일(수) - 5월 11일(일)

(2) 추진 방법

- 개인 기도와 가정 기도 때 냉담자를 위한 기도문을 바친다.
- 모든 미사후, 모임 후에 냉담자를 위한 기도문을 바친다.
- 기도 기간중에 반별로 하루씩 본당 성체 조배실에 모여 냉담자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반별 배정일에는 반원들과 협의해 각각 기도 시간을 정해 고리 기도를 봉헌하도록 한다.
- 5월 11일(일) 오전 11시 미사 때 기도 운동을 총결산하는 미사를 봉헌한다. 이때 기도 운동 기간중에 회두한 냉담자 전원을 초대해 환영하고, 미사후에는 환영 잔치를 갖는다.

(3) 반별 기도 배정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4월 2일	3일	4일	5일
			사목회	구역장·반장	기쁨 1반	기쁨 2반
5	6	7	8	9	10	11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기쁨 3반	기쁨 4반	기쁨 5반	기쁨 6반	선행 1반	선행 2반	선행 3반
12	13	14	15	16	17	18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선행 4반	선행 5반	사랑 1반	사랑 2반	사랑 3반	사랑 4반	사랑 5·6반
19	20	21	22	23	24	25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온유 1반	온유 2반	온유 3반	온유 4반	인내 1반	인내 2반	인내 3반
26	27	28	29	30	31	32
27일	28일	29일	30일	5월 1일	2일	3일
인내 4반	인내 5반	인내 6반	친절 1반	친절 2반	친절 3반	친절 4반
33	34	35	36	37	38	39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친절 5반	평화 1반	평화 2반	평화 3반	평화 4반	평화 5반	평화 6반
40	- 4월 19일(토) : 교구장 사목 방문, 견진성사 - 5월 11일(일) : 냉담자 환영 미사, 환영 잔치					
11일						
전 신자						

(4) 기도 모임 순서

- 시작 기도 및 시작 성가
- 성서 낭독 : 마태오 18,10-14 또는 루가 15,8-10

- 목상 및 나눔
- 목주 기도(5단) : 지향 - 냉담자 회두를 위하여
- 마침 기도 : 냉담자를 위한 기도
- 마침 성가

나. 매주 특별 반모임과 레지오 주회의 운영

(1) 기간 : 4월 2일(수) - 5월 11일(일)

(2) 추진 방법

(가) 특별 반모임

- 기도 운동 기간 동안 매주 1회 반모임을 갖도록 적극 권장한다.
- 이 기간 동안에는 남성들도 반모임에 참석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 반모임 때는 추진 본부에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라 반모임을 운영한다.
- 특별히 반모임 때는 자기 반 안의 냉담자들의 냉담 원인을 서로 이야기해 보고 다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들을 위한 집중적인 기도를 바친다.
- 반장들은 반모임 결과를 일지에 적어서 냉담자 방문 실적 보고와 함께 추진본부로 매주 보고한다.
- 방문시 남성이나 청년들의 경우는 남성 레지오 단원이나 청년연합회의 협조를 받는다.

(나) 특별 레지오 주회

- 레지오 마리아의 각 뿌레시디움은 기도 운동 기간 동안은 잃은 양 찾기 운동을 중심으로 활동과 회합을 갖는다.
- 레지오 마리아의 각 뿌레시디움은 각각 배당된 기타 구역의 냉담자들을 방문하고, 그 결과를 꾸리아 단장에게 보고한다.

다. 냉담자 방문

(1) 기간 : 4월 2일(수) - 5월 11일(일)

(2) 추진 방법

- 각 반과 뿌레시디움은 반내의 냉담자나 기타 구역의 냉담자를 2회 이상 방문한다.
- 각 반장은 방문 결과를 매주 구역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각 구역별 책임자는 이를 종합해 추진본부에 보고한다.
- 방문 시기와 방법은 반모임이나 뿌레시디움 주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되,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방문할 때는 본당에서 준비한 냉담자를 위한 선교 자료나 주보 등을 반드시 가지고 간다.
- 방문자들을 방문에 앞서 함께 방문할 냉담자를 위해 기도하고 방문후에도 방문했던 냉

답자를 위해 반드시 기도를 바친다.

- 방문자들은 개인별 냉담자 신상 카드에 방문 결과를 기록하여 추진 본부에 제출한다.
- 다시 성사 생활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즉시 주임신부에게 소개해 고백성사를 받고 정상적인 성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 더 자세한 방문 요령은 추후 세부적으로 결정해 교육하고 배포한다.

라. 냉담자 환영 미사와 환영 잔치

(1) 일시 : 1997년 5월 11일 오전 11시 미사

(2) 추진 방식

- 미사중에 냉담자들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신자들의 뜻을 담아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진다.
- 환영 잔치는 단순히 먹고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가능하면 각 단체에서 환영의 뜻을 전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한다.
- 환영 잔치에는 회두한 냉담자의 인도자는 물론 대부모도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6. 기타 사항

- 냉담자 방문 결과를 정리해 본당 사무실의 전산 자료를 수정한다(분가한 자녀 등).
- 청소년 냉담자는 추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제2장 예비 단계

1. 추진위원회 구성

<우리 가족 찾기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 본당 사목회장
부위원장(2명) : 구역분과장, 선교분과장
위원 : 구역분과 차장 및 위원
 선교분과 차장 및 위원
 교육분과 분과장·차장 및 위원
 본당 레지오 꾸리아 단장
 본당 사무장

2. 분위기 조성

가. 소식지 발간

<우리 가족 찾기운동>의 목적과 추진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소식지를 몇 차례 발행하는 것이 좋다. 첫번째 소식지에는 운동의 목적과 추진 계획을 자세히 소개하고, 운동 기간 동안 발행되는 소식지에는 운동의 전개 결과 및 중간 평가 등을 담는다. 운동 기간이 끝나면, 운동의 최종 성과를 정리해 알리고 신자들의 참여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마지막 소식지를 발행한다.

나. 현수막 및 포스터 제작과 게시

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전 정면과 본당 안의 적당한 자리에 주제 성구와 표어 등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좋다. 포스터도 제작해서 본당 곳곳에 게시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3. 기도 봉헌 신청자 접수 및 기도운동 자료 발간

<우리 가족 찾기운동>은 기도운동이다. 따라서 각종 기도운동이 운동 기간 동안 전개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기도를 배정하는 것보다는 기도운동에 대한 참가 신청을 미리 받아서 기도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4. 냉담자에게 전달할 각종 자료의 준비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되면 본당 신자들이 냉담자 가정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때 그냥 방문하는 것보다는 각종 자료를 전달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다.

가. 주임신부의 사목 서한 또는 육성 녹음 테이프

냉담자를 대상별로 분류해 각 대상에게 보내는 주임신부의 사목 서한을 작성한다. 가능하면 주임신부의 친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목서한보다는 육성 녹음 테이프가 더욱 효과적이다. 육성 녹음 테이프를 제작할 경우에는 대량 복제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 복사기를 구입해 본당 차원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이 좋다. 테이프도 전문 업체에서 구입하면 원하는 분량의 녹음 테이프를 구입할 수 있다.

나. 성탄 카드 및 부활 카드

<우리 가족 찾기운동>이 사순절이나 대림절 동안 전개될 경우에는 성탄 카드 및 부활 카드(또는 부활 계란)를 냉담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좋다.

다. 냉담자를 위한 소책자와 단행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발행한 냉담자용 소책자 또는 신앙 서적을 준비한다. 본당에서 권할 만한 소책자 또는 단행본을 일괄 구입해 본당 사무실 또는 성물 판매장에 비치하고 신자들이 이를 구입해 냉담자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한다.

라. 후보 등 교회 간행물

후보는 가장 부담없으면서도 효과적인 전달물이라 할 수 있다. 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후보를 냉담 가정에 정기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냉담자 회두 활동에 매우 유익하다.

제3장 실행 단계

1. 매주 반모임 운영

운동이 시작되면 매주 반모임을 갖는다. 반모임은 본당에서 배포한 반모임 일지와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반모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가. 사랑의 편지 쓰기

반원들이 같은 반에 살고 있는 냉담자들을 위해 사랑의 편지를 써서 전달한다. 사랑의 편지는 반모임 시간에 쓸 수도 있고, 특별히 따로 시간을 정해 쓸 수도 있다. 사랑의 편지를 쓰는 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다를 활용할 수도 있다.

- (1) 한 명의 대상자에게 보낼 편지에 반원들 모두가 짧게 한 마디씩 사랑의 말을 적는 방법.
- (2) 평소 가깝게 지내던 신자가 특정 대상을 위해 사랑의 편지를 쓰는 방법.

나. 지향기도 봉헌

반모임에서는 냉담자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봉헌한다. 기도를 봉헌할 때는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 기도한다.

다. 대화 모임

반모임 일지에 제시된 주제에 따라 대화를 나눈다.

2. 방문 요령

냉담자를 방문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른다.

첫째, 냉담자를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냉담자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바친다.

둘째, 반드시 **2번** 이상 방문한다. 한번 방문했을 때 냉대를 당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된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처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면 언젠가는 마음이 풀려 신앙 생활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러 번 방문한다.

셋째, 방문할 때는 절대 혼자 방문하지 말고 **2명** 이상이 함께 방문한다. 여럿이 방문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1명**만 방문했을 때는 냉담자의 심리 상태나 신앙 생활 재개 의사에 대한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방문할 때는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선물이나 본당에서 제공하는 전달물을 가지고 간다. 이왕이면 빈대떡, 떡 등 집에서 만든 간단한 음식이 좋다. 이를 준비하기 어려우면 과일이나 아이

들에게 줄 과자 약간을 사 가지고 간다.

다섯째, 냉담자에게 허락을 얻은 다음에 가정을 위한 기도를 봉헌한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데 기분이 나쁠 리 없다. 하지만 원치 않는데 억지로 기도한다면, 그 역시 역효과만 낼 수 있다.

여섯째, 방문한 다음에는 반드시 방문 결과를 냉담자 신상 카드에 기록한다.

3. 냉담 신자 신상 카드 작성과 관리

방문이 모두 끝나면 반장은 냉담자 신상카드를 작성한다. 주의할 점은 냉담자 신상 카드를 직접 들고 방문해 냉담자가 보는 앞에서 적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작성된 냉담자 신상 카드는 본당 사무실에 비치해 레지오 단원들이 냉담자 회두 활동을 할 때 수시로 참조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4. 상황실 운영

<우리 가족 찾기운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는 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 상황실에서는 운동의 추진 경과를 수시로 확인 집계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한다. 상황실은 본당 사무실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본당 행정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모든 사람들이 매일 상황 근무를 하기 어려우니, 추진위원들은 근무 편성표를 작성해 교대로 상황실에 상주하도록 한다.

5. 환영 행사 준비

가. 환영행사 초청장 전달

환영행사 초청장을 전하는 방법에는 직접 사람이 전달하는 방법과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므로, 가능하다면 같은 반원이나 가깝게 지내는 본당 신자가 직접 전달하고 꼭 참석할 것을 부탁한다. 환영행사 초청장은 늦어도 행사일 1주일 전에는 전달되어야 한다.

나. 행사 프로그램 준비

딱딱한 기념식이 되어서는 오랜만에 성당을 찾은 냉담자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성가, 연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문화 행사로 환영 행사를 갖는 것이 좋다.

다. 현수막 등 환영 분위기 조성 및 음식 준비

환영의 뜻을 담은 현수막, 포스터, 성전 정면의 글씨 등을 통해 환영의 분위기를 한껏 조성할 필요가 있다. 조출한 음식도 미리 준비한다. 구역·반별로 약간의 음식을 분담해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4장 마무리 단계

1. 환영 행사

환영 행사는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을 따른다. 대체로 주일 오후 시간이 적당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미리 준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2. 회두 냉담자 대상 교육 실시

환영 행사가 끝나면 곧바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방식은 하루 피정이나 성지 순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어떤 방식이든 이제 막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신자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과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냉담자들은 흔히 고백성사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계속 그래서는 곤란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는 하루 피정이나 성지 순례를 할 때 합동 고백 예절 등을 통해 개별 고백성사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는 신자들을 배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 같은 교육을 실시할 때는 가능하면 대부모가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모가 이미 다른 본당으로 옮겼거나 잘 모르는 경우는 해당 반의 반장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이들이 다시 냉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3. 평가회 실시와 자료집 제작

운동이 마무리되면 반드시 평가회를 갖는다. 평가는 처음 세웠던 목적과 목표가 얼마나 충실히 달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한다. 평가회를 마치면, 운동 기간 동안 나왔던 각종 자료들과 평가 내용을 묶어 자료집을 제작한다.

4. 전산 입력 자료의 수정

운동이 마무리되면 본당 사무실에서는 냉담자 신상카드를 참조해 실제 냉담자 현황을 전산 입력한다. 만일 판공성사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냉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운동 기간 직전의 판공성사 표시란에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표시해 냉담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한다.

5. 지속적인 냉담자 회두 활동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각 구역·반과 레지오 단원들은 냉담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방문 활동을 계속한다. 그리고 방문후에는 반드시 방문 활동 결과를 냉담자 신상카드에 기록한다. 냉담자 신상 카드 또는 교적에 다음과 같은 색의 스티커를 붙여 쉽게 냉담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냉담 신자의 5가지 유형 분류 및 색 구분

색 구분	유 형
파랑	계속 돌보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녹색	직장 생활로 인해 주일을 지키지 못해서 신앙 생활에 어려움을 안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돌보면 나올 수 있는 사람
빨강	개종한 사람
노랑	성당에 안 다니겠다고 거부한 사람 또는 혼인 장애인
흰색	행방 불명 신자

<참조> 냉담자 하위유형의 분류과정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
1. 사망	1. 사망	1. 사망
2. 외국 이민	2. 행방불명	2. 행방불명
3. 이사		
4. 해외 혹은 지방 근무	3. 직장 사정으로 인한 불출석	3. 잠정적 냉담자
5. 주일 근무		
6. 결혼후 가족의 반대	4. 결혼후 가족의 반대	
7. 외국 유학	5. 학업	
8. 고3, 재수		
9. 군복무	6. 군복무	
10. 환자, 장애인	7. 병약자	4. 오인된 냉담자
11. 고령		
12. 가끔 출석	8. 출석자	
13. 자주 출석		
14. 타 본당 출석	9. 타 본당 출석자	
15. 성직자, 수도자	10. 성직자, 수도자	
16. 타 종교로 개종	11. 타 종교 개종	5. 진정한 냉담자
17. 기타 이유로 교회 불출석	12. 냉담자	
18. 조당		
19. 냉담		
20. 미상	13. 미상	6. 미상
21. 비해당		